

주간기도정보

2025. 11. 1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잊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느니라”

“반민주적이며, 위헌 요소 다분한 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거룩한방파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밝혀



교계·시민단체가 동성애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각종 법제화 시도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동성 배우자 등록, 성평등 가족부 개편, 낙태 전면 허용,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종교 자유 침해 등 7가지 분야를 ‘위헌적·반민주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입력 할 수 있게 된 것은 동성 배우자 합법화를 인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헌법 개정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법률과 제도, 교육에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영준 변호사는 “한국에는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를 보호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각각 제정돼 있는데도 차금법을 만들려는 건 남녀로 구분된 성별을 성별정체성, 젠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에 관해서는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해 동성 커플에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특히 정부가 약물 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로 삼고, 국회에서 발의된 무제한 낙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낙태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는 “출생과 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여성 혼자만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임신 초기부터 산모와 태아 모두를 보호할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 점도 문제시됐다. 길원령 한동대 석좌교수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젠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거룩한방파제는 기자회견 후 성명을 내고 “차금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이런 법제화 시도들은 동성애,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정책들이 대한 민국에서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며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12:1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편 2:1-4)

하나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에 대적하여 헛된 일을 꾀하고 각종 악한 법제화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여 진리의 기준을 퇴색시키고 캄캄함이 짙은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써 악한 자를 이기며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건 순종과 기도로 이 땅에 등불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교회를 향한 박해와 사탄의 간계가 난무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모든 영혼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광을 나타내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북한 “종교 활동 사실상 근절 단계”…통제 성과 자신감 드러내

종교 행위 금지 명시한 법 제정 후 보위기관 면밀 감시…걸리면 3대 가족까지 관리소행



북한 당국이 최근 “조직적인 지하 예배나 비밀 기도회는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종교 통제의 성과를 자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사실상 근절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이를 체제 안정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는 2021년 9월 제정된 ‘청년교 양보장법’ 이후 강화된 단속 체계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에는 종교 단속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지만, 보위성 반탐부가 종교 활동을 ‘반국가 범죄’로 분류해 직접 수사한다”며 “각 지역의 보위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파견 노동자들에게도 이중·삼중 감시 체계가 적용되며 귀국 후 종교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체포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기독교와 천주교 관련 행위로, 이것은 “무조건 관리소(정치범수용소)행”으로 처리된다. 불교나 민간신앙에 따른 미신 행위도 단속 대상이지만,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단속 방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제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한 공작이 이어진다. 특히 북한 당국은 종교 사건을 주민 교양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종교 사건을 공개하면 오히려 종교를 퍼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소식통은 설명했다.

종교 행위가 적발되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3대까지 정치범수용소 내 완전통제구역에 격리된다고 한다. 이는 ‘사상 오염’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보위성 내부에서는 ‘사상 교회보다 엄정 색출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걸리면 무조건 관리소행, 교회는 없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로 북한 내 종교 활동은 점차 위축돼 과거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던 지하 예배 조직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주민이 혼자 기도하거나 성호를 짓는 정도의 개인적 행위만 남아 있다는 게 북한 당국의 평가다. 당국은 이를 체제 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종교 억압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응답자(1만 5,303명) 중 북한 내에서 직접 종교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1.7%뿐이었으며, 대부분은 중국이나 제3국 체류 중 종교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 십자가 등 종교 물품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4%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종교 관련 물품 소지 자체가 체포 및 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사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6,18)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사도행전 4:2-4)

하나님, 북한 내에 종교 활동이 거의 사라졌다고 당국은 평가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말씀은 여전히 그 땅에서 흥왕하며 힘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감시 등으로 종교를 막아서려는 이면 뒤에 숨겨진 북한 정권의 두려움과 몸부림을 주께 고하오니 진리를 대적하는 체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여 주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복음의 통로 된 이들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옵소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교회로 주의 백성들을 견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SNS·설문으로 접근…수능 끝난 고3 ‘이단 경계령’

설문 가장해 개인정보 확보 후 개별 연락해 포교 모임 참석 유도



2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김하늘(가명·21)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를 찾았다. 대학 입시에서 해방된 기분에 들며 있던 그는 “청년 가치관 설문조사에 잠시만 응해 달라”는 말을 듣고 참여했다. 신앙과 인생관에 관한 문항이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추첨으로 커피 교환권을 준다는 안내도 있었다.

김씨는 “이상하다고 느껴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모략 포교의 하나였다”며 “검색해보지 않았다면 아무 의심 없이 모임에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여전히 이단·사이비 단체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예비 졸업생과 신입 대학생을 겨냥한 포섭 시도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이단은 관계 중심 접근으로 신뢰를 쌓기 때문에 초기에 구분이 어렵다”며 “교회가 실질적인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접근 방식은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다. 여수종교문제연구소(소장 신외식 목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며, 거리 설문조사나 문화강좌, 대학 동아리 등을 매개로 신입생과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가장 흔한 유형은 ‘청년 가치관 조사’나 ‘MBTI 성격 유형별 검사’ 등을 표방한 거리 설문조사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한 뒤, 이후 개별 연락을 취해 성경공부 모임으로 유도한다. 연구소는 “익명으로 이뤄져야 할 설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료 문화강좌나 교육센터를 가장한 포교도 잦다. 손글씨·서예·종이공예 등 취미 강좌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성경 공부나 교육센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같은 학교나 고향, 학과 등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거나, 대학 내 기존 동아리에 잠입해 신입생을 포섭하는 경우도 있다.

여수종교문제연구소는 “이단·사이비 단체는 정체를 숨긴 채 관계 형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구분이 쉽지 않다”며 “교회와 가정이 수능 이후 수험생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 신앙지도를 긴밀히 이어가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블백신센터 원장 양형주 대전도안교회 목사는 “캠퍼스 내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며 다가오는 단체들의 경우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특정 인문학 강의를 다녀왔다든지 무료로 성격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요한2서 1:7-8)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양모하나이다(시편 63:1)

하나님, 이제 수능을 마치고 입시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떨떠있는 청소년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교리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멀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단들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 가운데 깨어 있기 위해 스스로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사, 저들을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인도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를 따르게 하시고, 영광의 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을 받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실1 -

기독실2 -

기독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